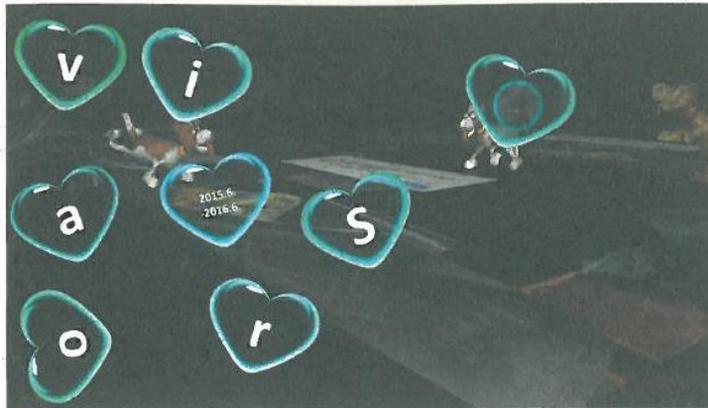


유명한 무명

July, 2016 | 김희천 기자

유명한 무명

6.28~7.31 국제갤러리



현대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유명인과 무명인에 대한 구분, 즉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.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베리핑크 오민 이윤이 태가 참여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입체적인 현실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, 설치, 디자인, 사진 작업 등을 선보인다. 이 작품들은 서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끌림에 의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연결되는 한편, 개별 작가 고유의 배경 차이에서 기인한 구분을 통해 '유명'과 '무명'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가지는 다각적인 개념들, 즉 불확실성, 연약함, 변화 가능성과 동질화, 획일화에 대한 정밀하고 미묘한 저항을 제안한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유명해지지 못하면 사라지고 마는, 일종의 강박에 가까운 현실과 유명을 향해 질주하는 세태를 반추하며 나아가 알려지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 세대의 딜레마를 고찰한다. 김희천 작